

##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새 도전

### New Challenges for Korea Concrete Institute



최기봉\*  
Ki-Bong Choi

#### 1. 들어가기

1989년 ACI한국분회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창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칭 한국콘크리트학회 창립준비위원회의 준비과정을 거쳐 드디어 1989년 6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탄생시켰다. 우리학회가 창립될 당시에는 건설 분야에서도 기존학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등의 전문학회가 설립되기 시작한 상황이었지만, 기존 학회들은 새로운 전문학회의 창설은 건설분야의 분열조장이라는 명목으로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비록 우리학회는 ACI한국분회라는 완충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학회 창립하면서 기존의 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자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오직 콘크리트 학문과 기술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하였던 것이다. 초창기 10년간은 우리학회에 참여하였던 회원들의 학회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하여 학회의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열정이 모여 창립 10년 만에 회원 수를 2,000여명으로 현재는 8,000명 가까이 늘려왔고 가히 상상조차하기 어려웠던 통합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건설 분야 학회에서 유일한 콘크리트 공학연구소 및 탄탄한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학회로 발돋움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아직까지 글로벌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선진국의 코드에 맞춰가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는

\* 정회원, 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우리학회 감사  
kbchoi@kyungwon.ac.kr

#### 1. Introduction

The board meeting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meeting of the Korea Chapter of the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in 1989 recognized the necessity to found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KCI). Following certain preparatory steps taken by what was tentatively called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KCI, an organization meeting was finally held on June 24, 1989,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KCI. Although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and other specialized societies were beginning to branch out from their preexistent organizations by the time the KCI was founded, the existing organizations often criticized or held antagonistic views toward the founding of a new specialized society, fearing it may encourage sectarianism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Although the KCI underwent a buffer stage of the Korea Chapter of the ACI, we were very prudent in our efforts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preexisting organizations,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nd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nd we had genuine intentions of pursuing academic studie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field of concrete. The first decade of the KCI witnessed its members' full commitment and dedication to the institute, greatly contributing to its development.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such enthusiasm collectively resulted in the KCI expanding its member base to some 2,000 within a mere decade, and to nearly 8,000 to date, growing into what might be aptly dubbed the greatest academic society in Korea in the field, possessing such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as the Unified Concrete Structure Design Standards and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했다. 이들은 우리학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태어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2000년대에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성장한 젊은이들이며, 이들을 일컬어 'G세대 한국인'이라고 말한다. G세대는 절반 이상이 20대 초반까지 최소한 한번 이상 해외에 나갔고 수만 명이 조기유학, 단기연수 등을 통해 글로벌 사회를 경험했으며,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는 단군이후 우리민족이 처음으로 키워낸 구김살 없는 차세대 한국인이다.

지금부터 우리학회는 이들 G세대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차별화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학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새로운 환경의 도전

우리학회도 2004년도에 당시 학회가 가진 문제점의 분석과 국내 타 학회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였고, 2008년에 다시 이를 개선하여 글로벌(global)분야에도 중점을 두었으나 아직까지 국내 타 학회의 행보를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한 듯 보인다. 이는 전후에 태어나 압축 성장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와 민주화 구호를 외치며 20대를 보낸 386세대(1960년생)가 주축이 되어 수행되어 현재대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최종적으로 진행되어온 우리학회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선진학회라는 슬로건으로 선진국을 따라가는 모양새로 진행되어 중국에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선진국, 개도국 및 후진국을 망라한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히 우리학회만의 운영 및 조직, 국제교류분야의 두 분야가 현재와는 달리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첫째, 학회의 운영 및 조직은 조직 및 회원관리 분야, 회계분야, 학회 홍보 및 위상강화 분야의 세 가지로 이들 중 조직 및 회원관리 분야, 학회홍보 및 위상강화 분야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선진국 학회를 넘어설 수 있는 국제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Specifications, which were once unimaginable, and becoming the only concrete engineering research establishment in Korea. Nevertheless, our collective state of mind in response to the global age is passive, at best, toward trends in advanced countries.

Lately, a new breed of youngsters has been emerging in Korea. Born around the time of the 1988 Seoul Olympics, when the seed of the KCI was being sown, these young people, the so-called 'Generation-G Koreans' spent their youths in the 2000's,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ten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ith more than half of them visiting foreign countries once or more by their early 20's, and tens of thousands experiencing global society as visa students at some points in their lives, this generation holds a 'positive view of Korean society as a whole', and is the first generation since the Dangun era raised without the agony of poverty or oppression.

From this point on, the KCI should primarily develop differentiated,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for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it may rely on this generation to actively serve its own role in the global society and implement such plans in a scientific and systematic manner in order to enhance its status.

## 2. Challenges posed by the new environment

Although the KCI analyzed the issues that it had to face at the time, as well a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other Korean academic societies in exploring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2004, and revised these to focus on global aspects in 2008, these are deemed equivalent to merely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other organizations within the country. Furthermore, spearheaded by the post-Korean War baby boomers (born in 1955~1963), who spent their youth in what is called the era of 'condensed' growth as well as 'Generation 386', who spent their 20's calling for democracy (born in the 1960's), these attitudes do not reflect the mind-set of the current younger generation.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of the KCI were finalized after those of advanced countries under the slogan of 'advanced society', and aimed, in the end, to comply with global standards. The KCI, however, now requires the sort of globalization that covers developed, developing, and

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베이비붐세대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회원에게 다가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지금까지 정제된 실질적인 회원 수를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답습되어온 고질적인 대학별 안배 추대방식을 탈피, 경력과 비전이 있는 회원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교류분야는 학회 설립 이래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00년 이후 국제교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정된 학회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 활동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스템 부재
- (2) 국제학회 유치에 대한 학회차원의 유치 전·후의 대응방법 제시
- (3) 국제화를 위한 영문 출판물 및 영문저널 출간실적 및 계획의 미비
- (4) 국제화를 위한 외국학회 및 관련기관 최신 동향과 정보수집기능의 활성화

위와 같이 비교적 짜임새 있는 모든 분야의 국제화를 망라하고 있다. 매우 체계적이고 잘 짜인 계획이라고 사료되나 이들 계획이 집행에 대한 계획적인 로드맵이 아직까지 작성되어 있지 않고 단편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지적된 선진국에 집중된 반쪽짜리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이를 넘어서는 차세대적인 'G세대의 학회'가 되도록 기반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 3. 나가기

지난 2009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소위 21세기형 학회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우리학회는 지금도 글로벌학회를 지향하기 위해 SCI급 학술지를 발간을 시도하고 여러 국제 활동들(ACF, ICCMC, ISO등) 및 국제학술발표회 유치 등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의 명문학회로 알려져 있어 필자의 어깨가 으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underdeveloped countries. To this end, it is deemed necessary to greatly improve two aspects of the KCI: i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

Firstly,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the KCI may be broken down into three fields: (i) organization and member management; (ii) accounting; and (iii) publicity and the enhancement of its stat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to actively support the first and third fields and thereby allow the KCI to develop an international status beyond that of other organiz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For this purpose,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active members, which has been stagnating, would require the services of members to break from the baby boomer mind-set and a system developed to approach the members of the global age. It is also necessary to explore schemes to institutionalize the mandatory elections of those with appropriate professional expertise and vision as directors, emerging from the dated practice of distributing seats for each school from which the members graduated.

Secondly, the international exchange field has been steadily activ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institute. In order to ensure more efficiency and rationality, the KCI has begun to review international exchange since 2000, and its revised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Report covered globalization in all fields as follows:

- (1) the lack of a system to produce international relations experts;
- (2) the presentation of measures to respond to the hosting of international academic meetings before and after selection;
- (3) the lack of English publications and journals and publication plans; and
- (4) the facilitation of functions to examine recent trends and collect information on overseas academic societi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Although this plan is deemed highly systematic and well organized, it is being implemented in a fragmented manner without any specific roadmap for implementation. It is also targeted to an ill-considered push for globalization, exclusively focused on developed countries, as mentioned earlier. It is now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s so that the KCI may truly grow into an organiz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것도 '시간 단위'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초 단위'로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인들과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시간제로 시대'라고 규정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재빨리 적응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사료되나 최근 우리나라의 건설실적으로 볼 때 콘크리트 기술은 선진국 대열에 벌써 진입했다고 사료되며 이제는 차후 방향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필자는 학회의 태동부터 우리나라를 오늘의 한국으로 일으킨 베이비붐세대인 많은 분들이 우리학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키워온 현장을 목격한 한사람으로서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주체들이 뒤로 물러서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회의 발전방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학회는 또 다시 한 단계 올라서서 세계의 중앙에 서는 국제적인 명문학회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

담당 편집위원 :

김두기(군산대학교) kim2kie@chol.com

### 3. Conclusion

Having achieved remarkable growth into what might be called an organization for the 21st century within two decades as of last year, the KCI is engaging in unrivaled academic activities, including attempts to publish SCI-cited journals and the hosting of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s and other international activities involving the ACF, ICCMC, and ISO, meaning it has become widely known as a distinguished society in Korea.

We are, however, living in an 'age of changes'. These changes are not occurring within hours, but within seconds. Bill Gates and other renowned entrepreneurs and futurists define this phenomenon as 'an era of the Zeroth Hour,' recommending that we quickly adapt to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lthough it is important to adopt certain practices from developed countries, it is also deemed that, in view of the historical construction projects accomplished by Korean businesses, Korean concrete technology has the country already ranked among developed countries, a fact deserving of consideration in the future. Having witnessed how the baby boomer generation - the generation that built Korea as it is today - was dedicated to the growth of the KCI, I harbor great gratitude and respect for these people.

I also think, however, that if these members could back up a step and hold more objective views of th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CI as required by the change of the times, the KCI may become an internationally renowned organization,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global stage. ☐

## 알고싶은 Q&A 콘크리트 A

| 한국콘크리트학회 편 | 393쪽 | ISBN 978-89-6225-188-3 93540 |  
| 비회원 25,000원, 회원 20,000원 | 출판사 기문당 | 2009. 12 발행 |

#### ■ 소개

우리학회에서는 그동안 서신, 전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애왔고, 그 중 중복되거나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 이슈가 되는 질문을 콘크리트학회지 Q&A 코너에 게재하였다. 이에 장간호부터 2007년까지 20여 년간 학회지에 기술되었던 Q&A를 정리하여 “알고 싶은 콘크리트” 를 발간하였다. 이 도서는 각 분야별로 학회지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축적된 연구 결과 및 시대별 우리나라의 콘크리트실정에 맞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수록되어 있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도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BOOK NOTICE

